

# 2018 EBS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

##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http://www.namuacademy.com)을 이용해 주세요.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약습

기출로 보기

적용학습 (현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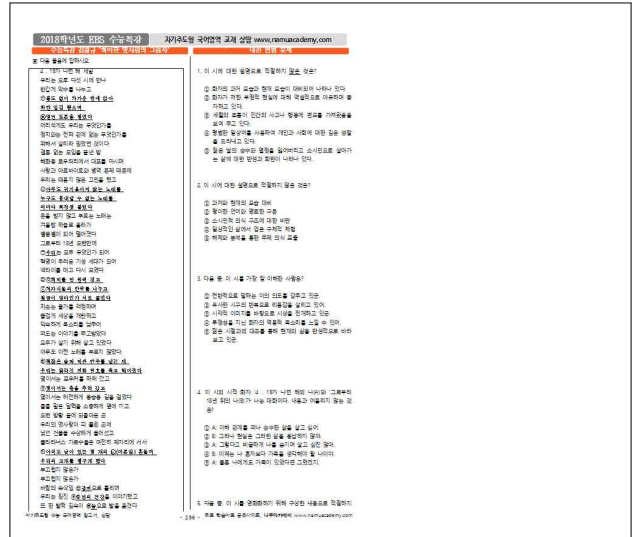
# 이 참고서의 구성과 특징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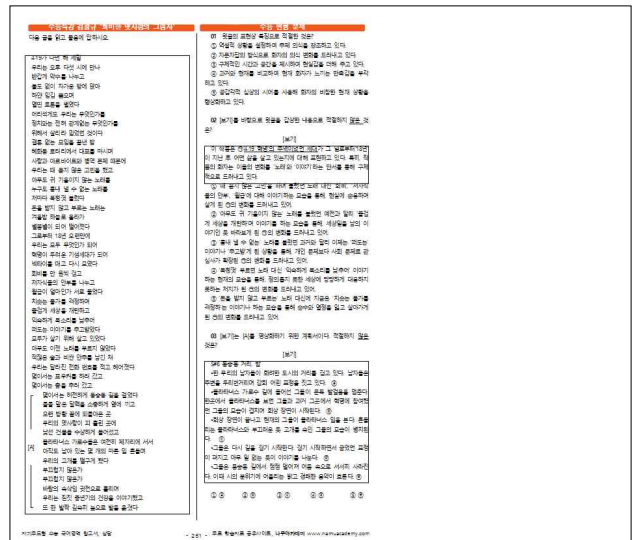
### 총론

- 이 참고서는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제를 방대하게 구성하였다. (현대시편, 350여 페이지)
- 문제를 수능용과 일반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용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 언제든지 모르는 사항을 홈페이지 [www.namuacademy.com](http://www.namuacademy.com)를 통하여 질문할 수 있다.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교재 시리즈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해설서 (운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해설서 (산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운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산문문학)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제집의 특징 I**  
**| 일반 문제를 구성하여 입시생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제집의 특징 II**  
**| 수능용 문제를 구성하여 교육청,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와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 이 참고서의 차례

## 2018 ebs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 I 개념학습

1) 국물 있습니다.	5
2) 동백꽃	14
3) 꽃, 꽃의 패러디	27
4) 눈길	51
5) 나뉘야 청산에 가자	69
6) 상대별곡	73
7) 화왕계, 어인 벌리	75

### II 기출로 보기

1) 연행가	91
2) 느낌, 극락 같은	98
3) 구름의 파수병	104
4) 박씨전	108

### III 적용학습 (현대시)

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15	17) 대바람 소리	246
2) 결빙의 아버지	123	18) 가을 떡갈나무 숲	254
3) 바다와 나비	126	19) 참회록	259
4) 마음의 고향	139	20)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269
5) 승무	144	21) 선우사 - 함주시초 4	276
6) 수선화, 그 환한 자리	157	22) 벼	283
7) 절정	161	23) 향수	293
8) 마음의 수수밭	173	24) 국토 서시	306
9) 해	177	25) 강우	311
10)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185	26) 흰 부추꽃으로	319
11) 한	189	27) 평상이 있는 국숫집	322
12) 님의 침묵	198	28) 적막한 식욕	326
13) 성북동 비둘기	214	29) 들국	332
14) 가지가 담을 넘을 때	225	30) 떠나가는 배	338
15) 풀	227	31)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348
16) 초토의 시1	239	32) 아버지의 마음	352

# 1. 개념학습

수능특강 이근삼, '국물있사옵니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학 : 자, 아버지 환갑도 지내야겠고..... / 상범 : 정말 큰일인데요.  
 상학 : 나..... 이제 한 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  
 상범 : ( ㉠ ) 네? 결혼이요? 아, 축하해요. 벌써 장가를 들어야 했었는데..... 아닌게아니라 나도 결혼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참인데, 암만해도 형님보다 앞서 장가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참 잘 됐어요!  
 상학 : 그러니 말이야, 아버지 환갑에 손님을 좀 초대하고도 싶지만 한 달 후엔 내 결혼식이 있으니 같은 손님들을 두 번 청할 수도 없고..... / 상범 : 그야 그렇지.....  
 상학 : 그러니 암만해도 이번 아버지 환갑은 네가 좀 주동<sup>1)</sup>이 돼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어.  
 상범 : 그렇기도 하군요. 사장님한테 직접 사정 말씀 드릴까.....?  
 상학 : 잘 알아서 해 주렴. / 상범 : 근데 아주머니 될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  
 상학 : 너도 잘 아는 여자지. / 상범 : 저도요?  
 상학 : 요 위층에 있는 미스 박 말이야. 가정 주부로서는 그만이기에.....  
 상범 : 아니, 박용자 씨 말입니까? / 상학 : 그래, 아마 너도 반대는 안 할 거다.  
 상범 : 저요? ..... 아니요..... 아니요.  
 상학 : (팔목시계를 보더니) 이런, 시간에 늦겠다. 그럼 내 2, 3일 내에 또 연락할게.  
 상범 : ( ㉡ ) 박용자 씨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  
 상학 : 그럼, 인천에도 몇 번 놀러 왔었구. 약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결혼식도 간단히 하기로 하구. 그때 같이 영화 구경 간 것이 인연이 돼서..... 그럼, 몸 조심해.  
 [나] ㉢ 《상범 :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 이거..... ㉣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데다가 아버지 환갑 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sup>2)</sup>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서른한 살입니다. 앞으로 살아봤자 20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고 믿어 왔던 상식적인 생활은 저에게 손해만 끼쳐 왔습니다. 저는 결국 상식적인 생활(生活) 태도란 늘 손해만 갖고 온다는 새 상식을 얻었습니다. 인천(仁川)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여름에 하도 무덥기에 해수욕장에 나갔습니다. 별거벗은 여자들의 알몸을 밀짚모자 밑으로 감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바위 밑에 옷을 입은 채 기어들어가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물에서 나오질 않았습디다. 틀림없는 자살입니다. 밀짚모자를 내던지고 달려가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래 위에 끌어 내서 살렸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저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저를 파출소로 연행<sup>3)</sup>하더군요.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새 상식을 배우렵니다.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일반 변형 문제 (지문 수록 부분 외에 작품의 다른 부분 포함)

안겨 줘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는 길을 터둬야겠습니다.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을 회사에서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어휘 풀이] 1) 주동(主動) :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움cx 직임. 2) 주선(周旋) : (일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 힘을 써 주는것 3) 연행(連行) : 강제로 데리고 감. 특히, 범인이나 용의자 따위를 경찰사로 데리고 가는 일

- 김상범이 삶의 방식을 '기존 상식 → 새 상식'으로 바꾸게 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전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풍조
  - 과거에 안주할 경우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
  - 기존의 상식으로 살면서 손해만 보아 왔던 경험
  - 손해만 보고 살게 될 것 같은 미래의 삶에 대한 회의
  - 자신이 결혼하려 했던 여자와 형이 결혼하기로 한 사건
- 이 글의 주인공 김상범과 가장 유사한 인물 유형이 나타난 것은?
  - '허생전'의 허생은 글만 읽는 선비였으나, 현실에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고 나라의 부흥 방안을 제시하는 인물이 된다.
  -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서자 출신으로서 천대 속에 살아가다가 큰 뜻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활동하던 중 여러 위기를 맞지만, 그것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이상을 실현한다.
  - '두 파산'의 김옥임은 젊은 시절에 여성 해방 운동에 공감하며 신여성임을 자처하였으나, 광복 후 불안정한 생활 속에 고리대금업을 하며 속물적인 정신적 파산자가 된다.
  - '장끼전'의 장끼는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에 사로잡힌 채 가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을 주워 먹다가 죽게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가부장의 위선적 권위를 버리지 못한다.
  - '광장'의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을 오가며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추구하지만, 어느 곳에 서도 그것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중립국을 향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투신 자살을 한다.
- 이 작품으로 공연을 할 때, ㉢의 대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쓰시오.
-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 설상가상(雪上加霜)
  - 사고무친(四顧無親)
  - 일석이조(一石二鳥)
  - 흥진비래(興盡悲來)
  - 금의야행(錦衣夜行)
- ㉠와 ㉡에 동작 지시문을 넣는다고 할 경우, 들어갈 말을 차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심 없다는 듯이 - 기쁜 표정으로
  - 담담한 목소리로 - 괴로운 표정으로
  - 기쁜 표정으로 -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 담담한 목소리로
  - 못마땅한 표정으로 - 어쩔 수 없다는 듯이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미 : 네, 저예요. 그분이요? 경리 보는 김상범 씨예요. 괜찮아요. 네? 지금이요? 아직 사장님도 계시는데..... 알겠어요. 그리로요? 혼자서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네.

수화기를 놓고 시계를 본다. 이어 사장실로 들어간다.

상범 : (관객에게) 팔 개월 전에 죽은 남편을 잊을 수가 없었던 저 여자입니다. 박 전무가 전화를 하니까 대낮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런 친구들의 상식, 즉 내가 '새 상식'이라고 부르는 상식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나] (아미가 나와 핸드백을 들고 무대 밖으로 나간다. 상범은 충구를 그의 등에 겨눈다. 문이 열리며 사장이 나온다. 상범은 몸을 돌려 뜻하지 않게 이번에는 사장에게 충구를 들이댄다.)

사장 : 에이크, 이 사람아!

상범 : 아이, 미안합니다. 손질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한번 쓰고 싶어서.....

사장 : (충을 받으며) 응, 수고했어. 경리 과장은 어디 갔나?

상범 : 네. 배 과장님은 ㉠ 돈 오천 원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 '바구니' 다방으로 가셨습니다.

사장 : 오천 원? 회사 돈을.....? <중략>

사장 : 배 과장이 쓰는 돈을 잘 알아 두도록 해.

상범 : 네,.....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 사장 : 그 다방에 있는 여자가 술집 여자인가?

상범 : 모르겠습니다. ㉢ 하기야..... / 사장 : 하기야.....?

상범 : 배 과장님이 ㉣ 약주를 참 좋아하십니다. ㉤ 점심때도 가끔 한 잔씩 하시긴 합니다.

사장 : 회사의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상범 : 사장님, 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다고..... 저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회사의 발전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장님의 지도를 받고.....

사장 : 알았어. 자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네. ㉥ 잘 해 보도록 해.

사장이 엽총을 들고 들어간다. 잠시 후 배영민이 들어온다.

영민 : 무슨 일 없었나? / 상범 : 아뇨.

(영민이 자기 주머니에 담배를 찾고 있음을 본 상범이 재빨리 테이블에 있는 담배를 집어 영민에게 주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 준다.)

영민 : 사장님은? / 상범 : 계시는 모양입니다.

영민 : 아, 이거 여편네 성화<sup>1)</sup>에 못 살겠군! 여편네 친구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 입원했는데 오천 원을 좀 빌려 달라는 거야.

상범 : 그럼..... 아까 다방에서 전화하신 분이..... 사모님이신가요?

영민 : 그래. 여편네들이 자꾸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오면 곤란해. 재수가 없어, 재수가!

상범 : (관객에게) ㉦ 네, 재수가 없죠. 재수가 없습니다. 그 후 한 달 있다가 경리 과장은 강원도 지사<sup>2)</sup>로 발령<sup>3)</sup>을 받아 전출<sup>4)</sup>했고, 저는 경리 과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출세가 이렇게 빠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을 버리고 새 상식에 의해 행동한 첫 효과였습니다.

제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장의 며느리요, 과부요, 또한 비서인 성아미와 박 전무의 관계를 적당히 이용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모든 가능한 출세의 문을 내 손으로, 내 이 두 발로 젖히고 차서 활짝 여는 겁니다.

[어휘 풀이] 1) 성화(成火) : 몹시성가시게구일 2) 지사(支社) : 본사의 관리 아래에 있으면서, 본사에서 갈라져 나가 일정 지역의 업무를 맡아 보는 사업체 3) 발령(發令) : 명령·사령(辭令)·경보 따위를 발표하거나 공포함. 4) 전출(轉出) : ①한 곳으로 이주하여 감. ②한 곳으로 전직하여 감. 전근(轉勤)

6. 이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제작진들의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아미는 화려한 분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물의 신분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② 특별한 조명 장치나 막의 구분 없이 장면이 바뀌고 있으니, 장면의 전환이 쉽겠군.
- ③ 상범이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장면에서는 조명을 상범에게만 비추어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 ④ 사장실, 비서실, 경리과 등의 무대를 따로 마련하고 사무실도 서로 각 부서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사실적으로 꾸며야겠어요.
- ⑤ 상범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7. 이 글로부터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범은 사장의 엽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 ② 배영민은 다방에서 술집 여자와 술을 마셨다.
- ③ 배영민의 아내는 남편의 회사에 자주 찾아왔다.
- ④ 성아미에게 온 전화를 상범이 받아서 바꿔 주었다.
- ⑤ 성아미는 사장에게 거짓 핑계를 대고 외출을 하였다.

8. 김상범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대사를 한다고 할 때, ㉠~㉤ 중, 강조하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9. ㉥의 내용을 사장의 말로 직접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회에 충실하도록 하게.
- ② 회사의 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게.
- ③ 성아미의 불륜 문제에 신경을 써 주게.
- ④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능력을 인정받도록 하게.
- ⑤ 직원들의 동태를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도록 하게.

10. ㉦의 결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쓰시오.

11. 김상범이 성아미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는 상징적 행동을 찾아 쓰시오.

1. ②    2. ③    3. 방백이므로, 관객을 향해서 말한다. [해] 김상범은 이 작품의 등장 인물이면서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데, 이 대사는 상범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백이다.    4. ①    5. ③    6. ④    7. ②    8. ③  
9. ⑤    10. 경리 과장이 강원도 지사로 발령받아 전출됨.    11. 상범은 총구를 그의 등에 겨누다. [해] 엽총은 사냥할 때 Tm는 총이다. 성아미의 불륜 사실을 눈치챈 상범이 엽총을 성아미에게 겨누는 것은 배영민에 이어 성아미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을 암시한다.

1. [답] ② [해] 김상범은 원래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으나, 그 선량함 때문에 손해만 보고 여자까지 형에게 빼앗기자 '기존 상식'을 버리고 '새 상식'을 갖고 한다. 그러나 ②는 상범의 대사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2. [답] ③ [해] 김상범은 극이 진행되면서 성격이 바뀌는 입체적 인물 유형이다. 그런데 성격의 변화 방향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다. ③에 제시된 '두 파산의 욕망 역시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졌던 젊은 시절과 달리 물질 만능주의에 길든 속물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인물이다.
3. [답] 방백이므로, 관객을 향해서 말한다. [해] 김상범은 이 작품의 등장 인물이면서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데, 이 대사는 상범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백이다.
4. [[답] ① [해] 김상범은 자신이 결혼하려 했던 여자를 형에게 빼앗기고 형의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의 환갑 잔치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 격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인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이다. ②(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척이 없다는 뜻으로)의지할 만한 데가 전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한 가지 일로써 두가지의 이익을 얻는다. ④(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이 돌고 돌을 이르는 말이다. ⑤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을 자랑스레 한다는 뜻이다.
5. [답] ③ [해] ③은 형의 결혼 상대자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형의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 결혼 상대자가 자신이 결혼하려 했던 박용자임을 알고 나서 당황하고,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⑥에서처럼 확인하는 것이다.
6. [답] ④ [해] 무대 공간을 실제의 사실과 최대한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실주의극과는 달리, 이 작품은 그것이 비교적 자유롭게 꾸며지는 서사극에 해당한다. 제시된 장면에서도 사장은 '문'으로만 처리되고, 비서실과 경리과의 구분 없이 사건 전개에 필요한 간단한 소품만을 활용하여 사무실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7. [답] ② [해] 배영민이 다방에서 만난 여자는 자신의 아내이다. 배영민이 다방에서 술집 여자와 술을 마셨다는 것은 김상범이 배영민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꾸며 낸 말이다.
8. [답] ③ [해] ③은 배 과장이 다방에 술을 마시러 갔을 것이라는 사장의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말이다. 따라서, 말꼬리를 감추며 하는 것이 어울린다.
9. [답] ⑤ [해] 상범은 사장에게 경리 과장의 동태를 상세히 보고하고, 사장은 그에 만족하며 계속 그 일을 잘 하라고 한다. 이는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10. [답] 경리 과장이 강원도 지사로 발령받아 전출됨. [해] 김상범의 계략에 의해 결국 경리 과장인 배영민의 희생되어 강원도 지사로 전출 되고 그 자리를 김상범이 차지하게 되는데, 배영민의 '재수가 없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그가 정말로 '재수가 없어!' 좌천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11. [답] 상범은 총구를 그의 등에 겨누다. [해] 엽총은 사냥할 때 Tm는 총이다. 성아미의 불륜 사실을 눈치챈 상범이 엽총을 성아미에게 겨누는 것은 배영민에 이어 성아미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을 암시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상범은 27세 종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청년이다. 항상 손해만 보고 살던 상범은 차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게 된다. 우연한 기회에 상범은 사장에게 필요한 휴지를 주고, 술을 마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 사원에서 정식 사원이 된다. 또한 단순히 여자를 구경하러 교회에 갔다가 교회 장로인 사장을 만나 무한한 신임을 받게 된다. 덕분에 상범은 사장의 회사 스파이 역할을 맡게 된다. 상범은 옆집에 사는 '탱크'와 그의 정부 현소희에게, 그리고 관리인인 그의 친구에게 항상 손해만 본다. 그래서 그는 위층에 사는 박용자와 결혼을 결심한다. 박용자와 그의 어머니는 상범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중 상범의 형 상학이 상범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상학 : 나..... 이제 한 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  
 상범 : 네? 결혼이요? 아, 축하해요. 벌써 장가를 들어야 했었는데..... 아닌게아니라 나도 결혼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참인데, 암만해도 형님보다 앞서 장가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참 잘 됐어요!  
 상학 : 그러니 말이야, 아버지 환갑<sup>1)</sup>에 손님을 좀 초대하고도 싶지만 한 달 후엔 내 결혼식이 있으니 같은 손님들을 두 번 청할 수도 없고.....  
 상범 : 그야 그렇지.....  
 상학 : 그러니 암만해도 이번 아버지 환갑은 네가 좀 주동<sup>2)</sup>이 돼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어.  
 상범 : 그렇기도 하군요. 사장님한테 직접 사정 말씀드릴까.....?  
 상학 : 잘 알아서 해 주렴.  
 상범 : 근데 아주머니 될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  
 상학 : 너도 잘 아는 여자지.  
 상범 : 저도요?  
 상학 : ㉠요 위층에 있는 미스 박 말이야. 가정 주부로 서는 그만이기에..... <중략>

상학이 걸어 나간다. 상범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  
 상범 :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데다가 아버지 환갑 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서른한 살입니다. 앞으로 살아 봤자 20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A]배우고 믿어 왔던 상식적인 생활은 저에게 손해만 끼쳐 왔습니다. 저는 결국 상식적인 생활(生活) 태도란 늘 손해만 갖고 온다는 새 상식을 얻었습니다. 인천(仁川)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여름에 하도 무덥기에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별거벗은 여자들의 알몸을 밀짚모자 밑으로 감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바위 밑에 옷을 입은 채 기어들어가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물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틀

림없는 자살입니다. 밀짚모자를 내던지고 달려가 그 여자를 끌어 냈습니다. 얼굴도 예쁘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래 위에 끌어 내서 살렸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저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저를 파출소로 연행 3)하더군요.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 [A]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새 상식을 배우렵니다. 물에 빠진 놈 에겐 돌을 안겨 줘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는 길을 터득해야겠습니다.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을 회사에서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무대 좌측 사무실에 불이 켜진다. 성아미가 소파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다. 상범이 엽총을 들고 들어와 손질을 한다. <중략>  
 아미 : 상범씨는..... 아직 독신<sup>4)</sup>이세요?  
 상범 :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비서님은 결혼 안 하세요?  
 아미 : 저요?.....저의 남편이 돌아가신지 8개월밖에 안돼요.  
 상범 : 사장님의 아드님 말이죠?  
 아미 : 결혼 얘기를 꺼내 저의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아직 그 분을 못 잊고 있어요.  
 상범 :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엽총을 쥔 채 상범이 받는다) 네. 네?  
 성아미 씨요? 계십니다. (수화기 대신 엽총<sup>5)</sup>을 내밀며) 박 전무님입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수화기를 준다)  
 아미 : 네. 저예요. 그 분이요? 경리 보는 김상범 씨예요. 괜찮아요. 네? 지금이요? 아직 사장님도 계시는데..... 알겠어요. 그리로요? 혼자서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네.  
 (수화기를 놓고 시계를 본다. 이어 사장실로 들어간다.)  
 상범 : (관객에게) 8개월 전에 죽은 남편을 잊을 수가 없었던 저 여자입니다. 박 전무가 전화를 하니깐 대낮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런 친구들의 상식, 즉 내가 '새 상식'이라고 부르는 상식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미가 나와 핸드백을 들고 무대 밖으로 나간다. ㉡상범은 충구를 그의 등에 겨운다. 문이 열리며 사장이 나온다. 상범은 총을 돌려 뜻하게 얹게 이번에는 사장에게 충구를 들이댄다.)  
 사장 : 에이크, 이 사람이.  
 상범 : 아이, 미안합니다. 손질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한번 소구 싶어서.....  
 사장 : (총을 받으며) 응, 수고했어. 경리 과장은 어디 갔나?  
 상범 : 네 배 과장님은 돈 5천원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바구니' 다방으로 가셨습니다. <중략>  
 상범 : 배 과장님이 약주<sup>6)</sup>를 참 좋아하십니다. 점심때도 가끔 한 잔씩 하시긴 합니다.  
 사장 : 회사의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상범 : 사장님, 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다고..... 저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회사의 발전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장님의 지도를 받고.....  
 사장 : 알았어. 자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네. ㉢잘 해 보

도록 해.

- 이근삼, <국물 있습니다>

[어휘 풀이] 1) 환갑(還甲) - 61세를 일컫는 말. 회갑(回甲).  
2) 주동(主動) -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움직임. 3) 연행(連行) - 피의자 등을 체포하여 동행(同行)함. 4) 독신(獨身) - ①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 ② 배우자가 없는 사람. 여기서 ②의 뜻임. 5) 엽총(獵銃) : 사냥총. 6) 약주(藥酒) - '술'의 높임말

1. '김상범'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현 : 김상범은 주인공이면서 해설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1인 2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② 미경 : 김상범은 방백의 형식을 통해 관객에게 사건을 요약 전달하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며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 ③ 경하 : 이런 실험적 장치는 관객들이 사건 자체에 몰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 ④ 찬부 : 그 결과 관객은 극의 내용에 대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 ⑤ 인관 : 나아가 관객이 연극을 보며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2. <보기>는 [A]를 읽고 쓴 학생의 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상범은 상식적인 생활 태도가 늘 손해만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②그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해 보지만 좌절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③선의(善意)가 용납되지 않는 경험은 그에게 현실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는 이제 ④현실에서 자신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나아가 ⑤그는 잘못된 상식이 오히려 옳은 것이라고 그릇된 믿음을 갖는다.

3. ㉠에 대한 상범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은?

보기

- ㉠ a)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 b) 마른하늘에 날벼락
- ㉢ c) 눈 가리고 아웅
- ㉣ d) 가재는 게 편
- ㉤ e)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 ① a), b)
- ② a), d)
- ③ b), c)
- ④ c), d)
- ⑤ d), e)

4. [진단체크] 상범이 삶의 방식을 바꾼 것은 ( ㉠ )적 생활 태도가 늘 ( ㉡ )만 가져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진단체크] ㉠의 내용을 사장의 말로 직접 표현하시오.

6. [서술형] 이 작품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쓰시오.

7. [서술형] ㉠과 같은 행동이 암시하는 바를 쓰시오.

1. ③    2. ②    3. ①    4. ① 상식, ② 손해    5. 직원들의 행동을 잘 파악하여 보고해 주게.    6. 산업화로 인한 황금만능주의와 출세주의 풍조를 비판하여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상식적인 것들을 되찾아 바른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해] '국물 있습니다'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산업 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출세주의·배금주의 풍조를 반어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욕망 충족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비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7. 김상범이 총구를 성아미의 등에 겨누는 행동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김상범이 성아미의 등에 총구를 겨누는 행동은 상범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성아미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으로 볼 수 있다.

1.[답] ③ [해] 주인공이 해설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실험적 장치(①, ②)는 관객들이 사건 자체에 감정이 이입된 상태로 몰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③)이 아니라 방해함으로써 극의 내용에 대한 관객의 이성적이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④) 극의 배경이 되는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⑤).

2.[답] ② [해] 상범이 부정적 현실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3.[답] ① [해]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를 형에게 빼앗긴 상범은 기가 막히고 억울하며 분할 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왔던 가치관에 혼란을 느낄 것이다.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입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 마른하늘에 날벼락 :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당하는 불행이나 재난을 말한다.

4. [답] ① 상식, ② 손해

5. [답] 직원들의 행동을 잘 파악하여 보고해 주게.

6. [답] 산업화로 인한 황금만능주의와 출세주의 풍조를 비판하여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상식적인 것들을 되찾아 바른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해] '국물 있습니다'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산업 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출세주의·배금주의 풍조를 반어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욕망 충족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비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7. [답] 김상범이 총구를 성아미의 등에 겨누는 행동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김상범이 성아미의 등에 총구를 겨누는 행동은 상범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성아미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으로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여사** : 아직 못 들었소?  
**상범** : 뭘요?  
**문 여사** : 아 글썸, 이 아파트의 관리인이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상범** : 네? 관리인이요?  
**문 여사** : 본래 심장이 약하신 분이었는데.....  
**상범** : 그럼 또 심장마비로.....  
**문 여사** : 그래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참 안됐어요. 식구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좀 모아서 조의금이라도 갖다 드릴까 해서요.....  
**상범** :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문 여사** : ㉠ 여유가 있는 대로 내일 아침 저희 방으로 갖다 주셔요.  
**상범** : 그러죠. (문 여사가 나가려고 한다.) 저.....어떻게 돌아가셨대요?  
**문 여사** : 식사를 하시다 그대로 쓰러졌다는 걸요.  
**상범** : 마지막에 남긴 말도 없이..... 유언도 없으셨군요?  
**문 여사** : ㉡ 유언이 다 뭘니까. 그래로 폭 쓰러졌다는데.  
**상범** : 그대로 폭 쓰러졌군. 그럼 내일 아침 뵈겠습니다.  
**문 여사** : 네, 전 이 방 저 방을 좀 돌아다녀야 합니다. (문 여사가 나간다. 상범은 소파 밑에서 관리인이 맡긴 돈 보따리를 꺼낸다.)  
**상범** : (관객에게) 이 돈 5만 원! 관리인이 저한테 맡긴 귀중한 돈입니다. 자, 이 돈을 어떡하지? 밥 먹다 폭 쓰러졌다니 이 돈에 대해 말할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돈은 비밀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돈에 대해 말을 했을 리가 없어..... 내 옛 상식에 따를 것 같으면 이 돈은 관리인의 미망인에게 돌려줘야 하겠지만..... 아니지, 이미 내 상식은 버리고 새 상식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 본시 관리인은 자기의 아내를 싫어했으니까. 오히려 나를 좋아했어. 그러니 이 돈은 내가 쓰는 것을 더 좋아할 거야. 질서정연한 논리야. (또 다시 관객에게) 그래서 이 돈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내 동생, 그 이상한 이름의 회사에 들어갈 시험 준비에 골몰하는 내 동생을 시내 어떤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상출이 무대 전면 좌측에 의자를 들고 들어와 앉는다. 현소희가 조그만 티 테이블을 들고 들어온다.)  
**소희** : 무슨 차 드실까요?  
**상출** : .....저.....사람을 기다리는데.....그 사람이 온 다음에 같이 들겠습니다.  
**소희** : 좋도록 하세요. (소희가 들어간다. 상출은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 연필로 줄을 그으며 읽는다. 시험 준비다. 잠시 후 상범이 의자를 갖고 들어와 앉는다.)  
**상범** : 오래 기다렸니?  
**상출** : 아니.  
**상범** : 다방에서도 시험공부야?  
**상출** : 할 수 있나?  
**상범** : 차 들었니?  
**상출** : 형이 안 오면 혼날라고? 주머니엔 버스표 두 장밖에

없어. 근데 왜 나오라고 했어?  
**상범** : (뒤로 몸을 돌려 소리 지른다.) 여보시오! 파인투스 두 개만 부탁드립니다.  
**상출** : 한 잔에 50원인데.....  
**상범** : 괜찮아. 나.....경리과장 됐다.  
**상출** : ㉢ 뭐? 형이? 경리과장? 굉장한데! 어떻게 벌써?  
**상범** : 사장이 날 신임하지. 또.....나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상출** : ㉣ 봉급도 두 배쯤 오르겠네?  
**상범** : 봉급이 문제냐. 그런데.....너도 그 입사 시험인가 하는데 합격되려면.....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출** : 무슨 운동?  
**상범** : 돈을 좀 써야 하지 않을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상출에게 쥐어준다.) 이거 5천 원인데.....  
**상출** : 5천 원?  
**상범** : 돈을 좀 쓰란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문제는 방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문으로 들어가건 뒷문으로 들어가건 문제가 아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들어가면 돼.  
**상출** : .....아이.....나 자신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 뭘을 어떻게 해?  
**상범** : 그건 네가 좀 연구해 봐야지.  
**상출** : (돈을 테이블 위에 도로 내밀면서) 그럼 더 복잡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 일까지 하려면 형편없이 복잡해지겠는 걸.  
**상범** : 공부를 작작 하면 되지 않니!  
**상출** : ㉤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시험을 치지?  
**상범** : 앞뒤가 막혔군! 너도 새 상식이 필요해. 새 상식이!  
**상출** : 뭐?  
**상범** : 뻘어. 뻘어! (현소희가 파인투스를 갖고 나온다.)  
<종락>  
**상범** : 이 돈은 내가 도로 갖겠다. 너도 좀 있으면 세상을 알게 될 거다.  
**상출** : 응? (이들은 비치던 조명이 사라지고 아파트 쪽이 밝아진다. 상범이 무대 전면 중앙에 선다.)  
**상범** : (관객에게) 죽은 관리인 영감은 아마 저한테 맡긴 돈 5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의 동생 상출은 아직도 이 새 상식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얼마 있다가 아버지의 환갑도 무사히 보냈고 곧 이어서 형님의 결혼식도 끝냈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었을지도 모를 박용자 씨는 '아파트의 열쇠'라는 영화 때문에 인제는 저의 형수가 됐습니다.

- 이근삼, <국물 있습니다>

1.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참조해 위 글을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이 작품은 서사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서사극은 관객이 무대 위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지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극 양식입니다. 서사극에서는 해설자를 등장시키거나 실험적 방식들을 사용해 관객들에게 일반적인 극에서는 접하기 힘든 낯선 느낌을 주곤 합니다. 이는 관객이 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몰입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 관리인이 맡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상범의 모습을 통해 관객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상범은 해설자의 역할도 수행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관객은 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상범이 말하고 있는 '새 상식'으로부터 관객은 부조리한 사회 풍조를 떠올리고 그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인물이 직접 극의 전개에 필요한 소품을 갖고 나와 공간이 바뀌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관객에게 낯선 느낌을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상범과 문 여사의 대화는 특정 사건이 매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관객은 극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상을 잘 활용해서 상출의 처지가 관객에게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
- ② 인물의 등장이나 조명에 의해 장면이 바뀔 때 어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어.
- ③ 관리인의 죽음을 상범에게 전할 때 문 여사는 연민어린 표정을 잘 지어야 해.
- ④ 극의 사실감을 높일 수 있도록 무대 배경이나 장치를 현실감 있게 꾸미도록 하자.
- ⑤ 상범 역을 맡은 배우는 상출에게 말을 할 때 말투에서 삶의 자세에 대한 확신이 묻어날 수 있게 연기해야 돼.

3. 위 글에 반영되어 있는 작가의 생각을 추리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
- ② 인간적인 정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를 바란다.
- ③ 타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 ④ 지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버리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모색한다.
- 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버리고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4. ㉠~㉣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기

희곡에서도 주인공과 대조적인 특성을 지닌 인물은 주인공의 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희곡에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이 주로 대사에 의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통해 주인공과 대조적인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주인공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 ㉑ 2. ㉔ 3. ㉑ 4. ㉑

1. ㉑ ㉑  
 ㉑ 문 여사는 상범에게 관리인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며 조의금을 걷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상범과 문 여사의 대화는 관리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관객은 극에 몰입하게 된다. ㉒ ① 관리인의 돈을 유용하는 모습은 부도덕한 모습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② <보기>에서 해설자를 등장시켜 관객과 극 사이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③ '새 상식'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상출, 소의, 상범은 의자와 테이블을 직접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2. ㉑ ㉔  
 ㉑ 상범의 아파트에서 다방으로 극중 공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인물들이 의자, 테이블 등의 소품을 들고 들어오므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극중 공간이 사실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몇몇 소품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극의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 무대 배경이나 장치를 현실감 있게 꾸미도록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㉒ ① 상출은 빈궁한 처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며, 상범이 주는 돈을 거부하고 있다. ② 상출이 등장하면서 공간이 아파트에서 다방으로 바뀌고 있으며, 조명을 아파트 쪽으로 비추면서 다방에서 상범의 아파트로 다시 바뀌고 있다. ③ 문 여사는 관리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⑤ 상범은 상출에게 강한 어조로 '새 상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3. ㉑ ㉑  
 ㉑ 이 글에서 상범은 관리인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상출에게 '방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문으로 들어가면 뒷문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인간성이 상실된 태도이다. 여기서 ㉑와 같은 생각이 작품 창작의 토대가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㉒ ① 작품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다. ②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작품의 문제 상황과 거리가 멀다. ③ 이 작품은 타인의 가치관과 신념이 존중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삼기보다는 인간성이 타락한 현실을 문제삼고 있다. ④ '지난 삶에 대한 회의'는 작품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거리가 멀다.

4. ㉑ ㉑  
 ㉑ <보기>에서는 대사를 통해 관객들이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대사는 ㉑이다. ㉑에서는 뒤에 이은 상범의 말처럼 상출의 융통성이 부족한 면과 함께 순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출의 특징은 상범의 인물됨과 대조되고 있다. ㉒ ① 방으로 조의금을 가져다 달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② 관리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상범이 경리 과장이 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과장으로 승진했으니 월급이 오를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말이다.

수능특강 김유정, '동백꽃'

일반 변형 문제 (교재 수록 부분 외 포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도 또 우리 숫탔이 막 쪼키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스라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 열리었다.

점순네 수탔(은 ㉡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숫탔을 함부루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목아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키어 붉은 선혈은 똑똑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가 하다가 생각을 고쳐 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냐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를 전 감자 ㉢ 쪼잔만 하드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땀이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안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든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소리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던 하지 벌서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느러놓다가 남이 드를가 봐 손으로 입을 틀러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벌루 웃어울 것도 없는데 날새가 풀리드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깨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드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든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였는지 아즉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인 이거 없지.”

하고 ㉤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볼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리지 않고 일하든 손으로 그 감자를 도루 어깨 넘어로 숙 밀어 버렸다.

그랬드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츰거진다. 이젠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감으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셋뺨애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드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구니를 다시 집어 들드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엷덜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험하게 다라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녀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보구니로 한 번 모지게 후려썰리고 다라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드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을라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중략>

“요담부터 또 그래 바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녀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동이기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여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윈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말아?”

“그래!”

조금 있드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누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우로 치빠지 않을 수 없었다.

- 김유정, <동백꽃>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산골 소년과 소녀 사이에 벌어지는 향토색 짙은 이야기가 해학적 문체로 그려져 있다.
  - 순수한 토속적 서정성이 나타나 있다.
  - 상황적 아이러니와 언어적 아이러니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시간적인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나'가 점순이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동하게 대응하고 있다.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열리었다 : 엷히게 되었다.
  - ㉡ 대강이 : '머리'의 속어
  - ㉢ 쪼간 : 건수, 사건을 이르는 말
  - ㉣ 썩이질 : 귀찮게 하는 것
  - ㉤ 생색 : 위엄을 부리고 거만하게 구는 것
- 위 소설에서 사건의 본격적인 발단의 계기가 되는 대상은?
  - 감자
  - 썩이질
  - 울타리
  - 생색
  - 홍당무
- 밑줄 친 발화 중 화자(話者)의 의도가 청자(聽者)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 느 집엔 이거 없지?
  - 봄감자가 맛있단다.
  -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려구
  -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테야!
  -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 통명스럽게
  - 능글맞게
  - 의뭉스럽게
  - 비아냥스레
  - 천연덕스레
- 이 소설에서 이성에 눈떠가는 성장기 소년, 소녀의 순수한 첫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를 찾아서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 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상동경동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게 내려왔다.

거지반 집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들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 산기슭에 늘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여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소리 호들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 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뚝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리 호들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뺄하고 허둥지둥 달겨들었다.

가차히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숫닭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러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들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드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호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겨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숫닭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대리 하나 꿈쩍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터냐?”

하고 무를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동이기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  
여 퍼드러진 ㉠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 향긋한 그 내용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  
이 윈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말아?”

“그래!”

조금 있드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누질을 하다 말구 어될 갔어?”

하고 어될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영금영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빠지 않을 수 없었다.

- 김유정, <동백꽃>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계층적인 관계가 암시됨
- ② 비속어의 사용으로 해학성을 살림
- ③ 난관 극복 후에 성취한 사랑의 송고함을 그림
- ④ 향토적 소재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극적으로 해소됨

8. 위 글에 나타난 '나'의 심리 추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노 → 증오 → 두려움 → 안도
- ② 증오 → 분노 → 안도 → 두려움
- ③ 두려움 → 안도 → 분노 → 증오
- ④ 안도 → 분노 → 증오 → 두려움
- ⑤ 분노 → 두려움 → 증오 → 안도

9.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점순이에 대한 강렬한 반감의 표현이다.
- ② ㉡ - 상황의 반전을 암시하는 배경이다.
- ③ ㉢ - 점순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④ ㉣ -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⑤ ㉤ - 두 사람의 사랑이 성취되었음을 암시한다.

10. 작품 전체를 바탕으로 '나(화자)'가 50년 후에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순이가 우리 집 수탉을 쥐어박던 일을 생각하면 내 입가  
에는 웃음이 번지곤 한다.
- ② 농촌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새빨개진 얼굴  
로 달려가던 점순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 ③ 소작인의 아들로써 감정조차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던 힘

든 때였으나 되돌아보면 그래도 순박했던 시절로 기억되곤  
한다.

- ④ 점순이가 그 때 요즘 젊은이들처럼 좀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속맥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⑤ 마름집의 인품을 늘 칭찬하셨지만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이 떠오른다.

11. (나) 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이다.
- ② 생략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 ③ 남녀 간의 애정을 속되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
- ④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사회 계층의 불평등 문제를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12.(나)의 밑줄 친 ㉠의 기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남녀 간의 애정 행각에 잘 어울리는 배경이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③ 토속적인 소재로서 작품에 서정성을 부여한다.
- ④ 청춘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 ⑤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  
못한 것은 없다.

게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옆는데 ㉠ 쌩이  
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  
로 살땀이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안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든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소리 대  
견해졌음은 웬일인가. ㉢ 항차 망아지만한 게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서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느러놓다가 남이 드를가 봐 손으로 입을 트러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루 웃어울 것도 없는데 날새가 풀리드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드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든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였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인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 ㉠ 나는 고개도 돌리랴지 않고 일하든 손으로 그 감자를 도루 어깨 넘어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드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츠러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감으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섧빳애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드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구니를 다시 집어 들드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엷더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 힘하게 다라나는 것이다.

(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녀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리 받는 점순이었다. 분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보구니로 한 번 모지게 후려썰리고 다라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드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을랴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라)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어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굶신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난으로 지날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우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이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즈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급식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었다. 왜냐 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러 죽일랴고 드는 것이다.

- 김유정, <동백꽃>

13.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순’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 백설이 훑날려도 아니 오시네
- ② 아주까리 동백아 피지를 마라 / 산골의 큰애기 봄바람 난다.
- ③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 동지 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 ④ 산천의 초목은 달이 달달 변해도 / 우리들 먹은 마음 변치를 말자
- ⑤ 춘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느냐 / 사세가 부득하여 지는 꽃이로구나

14. ‘나(화자)’가 점순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할 때, ㉠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 ① 내가 무관심한 척하니까 정말 미련스럽다고 생각하겠지.
- ②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척하니까 꼭 막혔다고 생각하겠지.
- ③ 내가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석같다고 생각하겠지.
- ④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니까 능청스럽다고 생각하겠지.
- ⑤ 내가 자꾸 거절하니까 겨울 다람쥐처럼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겠지.

15. (나)에 나타난 점순이의 심리 상태로 바른 것은?

- ① 분노감
- ② 흥분
- ③ 절망감
- ④ 두려움
- ⑤ 설렘

16. (라)의 ㉠부분을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거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때 그들을 구해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열일곱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고,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작지가 떨어지고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①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 ②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③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17. ㉠~㉥의 어휘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것
- ② ㉡ : 긴장하지 않고 은근하게
- ③ ㉢ : 하물며
- ④ ㉣ : 지체하지 않고 매우 빨리
- ⑤ ㉤ : 소작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도 또 우리 숫탔이 막 쪼키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스라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나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열리었다.

점순네 숫탔(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숫탔을 함부루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목아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키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겨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가 하다가 생각을 고쳐 먹고 헛대 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놔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게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게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뎀이 와서,

㉠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안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든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소리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한 게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

㉡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 “너 일하기 좋니?”

또는

㉣ “한여름이나 되거던 하지 벌서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느러놓다가 남이 드를가 봐 손으로 입을 틀러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벌루 웃어울 것도 없는데 날새가 풀리드니 이놈의 게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드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든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였는지 아즉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인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랴지 않고 일하든 손으로 그 감자를 도루 어깨 넘어로 숙 밀어 버렸다.

그랬드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스러진다. 이젠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감으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섧빠애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드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구니를 다시 집어 들드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엷덜질 듯 자빠질 듯 눈독

으로 힘하게 따라나는 것이다.

- 김유정, <동백꽃>

18. 이 글로 볼 때 평소 '나'는 점순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적절한 속담으로 나타낸다면?

- 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듯
- ② 소 닭 보듯
- ③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
- ④ 제 눈에 안경이듯
- ⑤ 자가사리가 용을 건드리듯

19. ㉠~㉣ 중, 작가의 개성적 문체를 보여주는 대사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작중 화자로 순박한 농촌 청년이다.
- ② 극화된 화자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 ③ 해학적이며 향토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문체가 쓰였다.
- ④ 갈등의 양상은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⑤ 인물은 주로 해설적 방법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21. '점순이'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목표 지향적이고 저돌적으로 실천한다.
- ② 되바라지긴 했으나 순진한 데가 있다.
- ③ 매사를 꼼꼼히 따지고 신중하게 접근한다.
- ④ 다정다감하며 타인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 ⑤ 의외의 일이 생겨도 냉정하게 대처해 나간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대뜸 달겨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솟탐을 단대로 때려 었었다. 닭은 푹 었어진 채 대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터냐?”

하고 무를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녀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동이기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여 퍼드러진 ㉣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용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윈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말아?”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누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우로 치빠지 않을 수 없었다.

- 김유정, <동백꽃>

2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하여 서정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판소리 사설체의 풍자적 어조로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묘사와 대사를 중시하지 않고 철저히 이야기체로 일관하고 있다.
- ④ 인물 사이의 갈등 관계를 냉소적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 ⑤ 속어와 사투리의 사용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미를 느낄 수 있다.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나'의 집안은 점순이네 집안의 소작농임을 알 수 있다.
- ② ㉡의 의미는 점순이가 '나'에게 다시는 닭싸움을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③ ㉢을 통해 '나'가 순박한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은 '나'와 점순이의 순박한 사랑을 나타내는 중심 소재이다.
- ⑤ ㉤은 '나'와 점순이의 순박한 사랑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다.

24. 이 글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바르게 감상한 것은?

- ① 당시 일제의 농촌 수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
- ② 지주와 소작농과의 갈등 관계로 인한 농촌사회 붕괴가 심각

한 사회 문제였구나.

- ③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처지가 불쌍해.
- ④ 농촌 젊은이들의 순박한 사랑 이야기가 참 따스하게 느껴져.
- ⑤ 신분상승의 욕구 때문에 마름의 딸을 사랑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늘도 또 우리 숫탔이 막 쪼키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스라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숫탔(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 덩저리 적은 우리 숫탔을 함부루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섯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목아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키어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나) 별루 웃어울 것도 없는데 날새가 풀리드니 이놈의 게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드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든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뽀뽀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었는지 아즉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 “느 집인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라지 않고 일하든 손으로 그 감자를 도루 어깨 넘어로 쑥 밀어 버렸다.

(다)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펍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뺨히고 허둥지둥 달겨들었다.

가차히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숫탔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들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이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게집애인 줄 알았드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호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겨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숫탔을 단매

로 때려 었었다. 닭은 푹 었어진 채 대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라) ㉥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터냐?”

하고 무를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마) ㉨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 “닭 죽은 건 염녀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동이기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여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윈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말아?”

“그래!”

조금 있드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누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 김유정, <동백꽃>

25.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절정에 달한 부분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6. 인물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단락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7.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 - 닭이 날개를 벌려 탁탁 치는 소리
- ② ㉡ - 덩치의 속어
- ③ ㉢ - 거절의 직접적 원인
- ④ ㉣ - 좋지 않은 내용의 소문
- ⑤ ㉣ - 눈시울을 치뜨고

■ 이 작품은 사투리를 구사하여 향토적 서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고 표준어로 바꾸시오.

28. ㉠~㉣ 중, 이성을 잃은 나에게 현실을 환기시켜 주는 말로 신분상의 차이가 강조되고 있는 대사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실팍하게

29. 다음 낱말 중 비어나 비속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대강이
- ② 덩저리
- ③ 모가지
- ④ 주둥이
- ⑤ 계집애

38. 쪼간

39. 쌍이질

30. '닭싸움'에 담긴 '점순'의 심리를 표면과 이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표면 - 분노, 이면 - 사랑
- ② 표면 - 증오, 이면 - 호감
- ③ 표면 - 사랑, 이면 - 혐오
- ④ 표면 - 연민, 이면 - 동정
- ⑤ 표면 - 좌절, 이면 - 동경

40. 격실격실히

41. 호들기

■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하시오.

■ 이 작품에서 '나'와 '점순이'의 성격을 반대로 설정한다면 다음 부분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31.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이유를 쓰시오.

“한여름이나 되거던 하지 벌서 올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느러놓다가 남이 드르가 봐 손으로 입을 트러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벌루 웃어울 것도 없는데 날새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께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드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든 바른손을 뺏아서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즉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32. 내가 감자를 안 먹겠다고 하였을 때, 점순이가 보인 반응의 의미는 무엇인지 쓰시오.

42. 내용 전개에 무리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33. 점순이네는 마름이고, 우리 집은 소작농이라는 상황 설정이 이 작품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쓰시오.

■ 작품 속에서 다음 소재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43. 다음 장면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지 쓰시오.

34. 감자

44. 이 작품은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에서도 해학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읽다가 웃음이 떠올랐던 표현이나 구절을 세 가지 이상 찾아 쓰시오.

35. 닭싸움

예)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36. 동백꽃 향기

- 1) [답] ④ [해] 이 작품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사춘기에 접어든 남녀의 애정을 토속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2) [답] ① [해] ㉠얼리다 : 서로 얽히었다.
- 3) [답] ①
- 4) [답] ④
- 5) [답] ⑤ [해] 부끄럼 모르고 씩씩한 점순이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 6) [답] 동백꽃
- 7) [답] ③ [해] 이 글은 사춘기 남녀의 애정을 그린 작품이다. ‘나’와 ‘점순이’의 애정 갈등이 닭싸움으로 보여지지만 서로 애정으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는다.
- 8) [답] ① [해] ‘나’는 닭싸움을 시키는 점순이에 대한 증오를 느낀다. 점순이네 닭을 죽이고서는 두려움을 느끼다 이르지 않겠다는 점순이의 말에 안도한다.
- 9) [답] ④
- 10) [답] ④
- 11) [답] ⑤ [해] (나)는 글의 결말 부분으로, 두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 계층에 대한 고발은 드러나지 않는다.
- 12) [답] ② [해] 동백꽃은 작품 전체의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주제를 암시하는 소재이다. 그러나 인물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는 닭이 죽고, 그 것을 점순이가 용서해 주는 것이다.
- 13) [답] ③ [해] (가)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호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나’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점순이의 이런 애정 표현과 유사한 정서를 고르면 ③이다.
- 14) [답] ⑤ [해] ‘나’가 점순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하면, ㉠은 일부러 점순의 마음을 모른 척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 15) [답] ① [해]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데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 16) [답] ⑤ [해] 1인칭 시점을 3인칭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독자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보다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 17) [답] ② [해] ⑥의 문맥적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18) [답] ②
- 19) [답] ② [해] 김유정은 토속적인 어휘와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 20) [답] ⑤
- 21) [답] ②
- 22) [답] ⑤ [해] 이 글은 적절한 사투리와 속어, 해학적인 필치로 남녀의 사랑을 속되지 않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 23) [답] ② [해] ㉡의 의미는 다음부터는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이다.
- 24) [답] ④
- 25) [답] ③
- 26) [답] ⑤
- 27) [답] ④ [해] ㉢은 점순이의 성격에 대한 소문으로 일 잘하고 얼굴이 예쁘다는 내용이 어울린다.
- 28) [답] ② [해] ‘나’는 점순이네 소작농으로 점순이네의 닭을 때려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무안함과 걱정을 하게 된다.
- 29) [답] ⑤
- 30) [답] ①
- 31) [답]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32) [답] 호의를 거절당한 데서 느끼는 무안함이 극도의 분노로 표출됨으로써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 33) [답] - 점순이와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점순이와 ‘나’의 애정 관계에서 점순이가 적극적이고 ‘나’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즉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사회적 위치 때문인 것이다.
- 34) [답]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내가 거절한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35) [답] 점순이가 ‘나’에 대한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자, 나와 점순이 사이를 맺어 주는 매개물이다. 이 작품의 사건 진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닭싸움이다. 그러기에 닭싸움으로 사건의 서술이 시작되었고, 사건의 전개도 닭싸움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에서도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나’와 점순이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지탱해 준다.
- 36) [답] ‘동백꽃 향기’는 ‘점순이의 향기’로서 사춘기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한편, ‘동백꽃’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을 자연에 조화시켜 은은하게 표현해 주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 37) [답] (사람이나 물건 등이) 보기에 튼튼하게.
- 38) [답] 일, 사건.

- 39) [답] 한창 바쁜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짓.
- 40) [답] 성질이 너그러워 언행이 시원시원하게.
- 41) [답] ‘호드기’의 사투리. 물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비틀어 뽑은 통껍질이나 짙은 밀짚 토막 등으로 만든 피리의 하나.
- 42) [답] 점순이가 순박하고 천진한 성격이고 반대로 ‘나’는 활달하고 도전적인 성격이라면 이 장면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다가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 건네고 말았을 것이다. 적극적인 ‘내’가 먼저 말을 걸어서 대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점순이는 준비해 온 감자를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점순이는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만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활달하지도 않은 점순이가 이 장면에서만 용기를 내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내용 전개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 43) [답] 점순이가 간신히 구운 감자를 내놓았다면 활달한 성격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그 감자를 먹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이성애 눈을 뜨지 못한 ‘나’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것이고, 점순이는 끝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 44) [답] - 별루 웃어울 것도 없는데 날새가 폴리드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뼈기에다 물쩍똥을 짖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이 든 듯싶다.  
 - 옳다 알았다 꼬추장만 먹이면은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 점순이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우로 치빠지 않을 수 없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 울타리 엮는데 ㉡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째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 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은다. 니나 먹어라.”

㉢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 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 물고는 얹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힝 하게 달아 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자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 번 모지게 후려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나)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에 이거 없지?” 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 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면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담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라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애다 우리 씨암탉을 곡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짜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 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뽁 질렀다.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 쉼터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튀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섰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김유정. <동백꽃>

1. ㉠, ㉡의 ‘울타리’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와 점순네의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한다.
- ② ㉠은 화자의 생활 공간이 고립되어 있음을 말한다.
- ③ ㉠과 ㉡의 역할과 의미는 동일하다.
- ④ ㉠과 감자는 동일한 감정을 매개하고 있다.
- ⑤ ㉡은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심리적 금기와도 같다.

2. ㉢‘썩이질을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토라지는 것
- ② 이죽거리는 것
- ③ 역성을 드는 것
- ④ 귀찮게 구는 것
- ⑤ 거들먹거리는 것

3. '나(화자)'가 점순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할 때, ㉠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 ① 내가 무관심한 척하니까 곰같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
- ②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척하니까 벽창호라고 생각하겠지.
- ③ 내가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석같다고 생각하겠지.
- ④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니까 너구리처럼 의문스럽다고 생각하겠지.
- ⑤ 내가 자꾸 거절하니까 겨울 다람쥐처럼 모아둔 게 많다고 생각하겠지.

4.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순'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백설이 흩날려도 아니 오시네
- ② 아주까리 동백아 피지를 마라 산골의 큰애기 봄바람 난다
- ③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설달 꽃 본듯이 날 좀 보소
- ④ 산천의 초목은 달이 달달 변해도 우리들 먹은 마음변치를 말자
- ⑤ 춘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느냐 사세가 부득하여 지는 꽃이로구나

5. (나)의 [     ]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 왔을 때는 아무 거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때 그들을 구해 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열일곱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고,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작지가 떨어지고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①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 ②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③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6. 위 글을 바탕으로 '나(화자)'가 50년 후에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순이가 봉당에 걸터앉아 우리 집 씨암탉을 쥐어박던 일을 생각하면 내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곤 한다.
- ② 농촌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새빨개진 얼굴로 눈독을 달려가던 점순이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 ③ 소작인의 아들로서 감정조차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던 힘든 때였으나 되돌아보면 그래도 순박했던 시절로 기억되곤 한다.
- ④ 요즘 젊은이들의 대담한 감정 표현을 볼 때 점순이가 그 때 좀 더 적극적으로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숙맥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⑤ 마름집의 인품을 늘 칭찬하셨지만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이 지금도 아련하게 머리 속을 맴돌곤 한다.

1. ⑤    2. ④    3. ⑤    4. ③    5. ⑤    6. ④

<현대소설>

1.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소재는 '감자'와 '울타리'이다. '감자'가 '나'를 향한 점순이의 연정을 상징한다면, ⑥의 '울타리'는 마름집 딸인 점순이와 소작농의 아들인 '나'의 접근을 가로막는 사회 계층적 금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①의 '울타리'는 '일거리'라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 답⑤
2. '쌍이질(씨양이질)'은 '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짓'을 뜻하며, ④와 유사하다. 그러나 ①은 '사이나 감정이 마음먹은 것과 틀려서 싹 돌아서다', ②는 '미운 티를 내며 빈정대다', ③은 '편을 들다', ⑤는 '신이 나서 도도하게 굴다'의 의미이다. 답④
3. ㉠에서 호의를 거절당한 것은 점순이의 연정이 증오와 복수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 '나'가 점순의 마음('나'를 좋아하는)을 안다고 가정한다면(사실, 작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과 같은 행동에서 점순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①,②,③,④ 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⑤는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내용이다. 답⑤
4. '감자'는 '나'에게는 점순이의 무시나 동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점순에게는 소중한 연정의 표현물이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나를 좀 보아달라며 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③이 정답이다. 답③
5.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3인칭 소설은 소설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외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에 객관성이 부여된다. 답⑤
6. 이 작품은 '나 - 소극적, 점순 - 적극적'이라는 인물의 대조적 성격을 통해 주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치 못하다. 답④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② 존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③ 꽃을 심미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 ④ 인식이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⑤ 진정한 관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2.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② 꽃의 철학적 존재 의미를 추론하고 있다.
- ③ 꽃의 객관적인 외양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 ④ 꽃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명명 행위의 철학적 의미를 꽃이라는 사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3.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가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다.
- ② '과거→현재→미래'로 시적 시간이 변화하고 있다.
- ③ 공간의 확대와 의미의 확대가 상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④ '나→너→우리'로 시적 대상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 ⑤ 외면의 탐색에서 내면의 추구로 시적 대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4. 다음 감상 중,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 ① 사람이 꽃이 된다는 것은 옛날이야기에나 나오는 일로,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② 문학은 꿈이잖아. 나도 가끔 변신을 꿈꾸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흔히 있는 일이야.
- ③ 맞아. 이 시를 쓴 시인이 사는 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삭막할 것 같아. 그러니 서로 꽃이 되자고 한 것 아닐까?
- ④ 꽃이 환기시키는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주제로 잘 연결되는 것 같아.
- ⑤ 시인은 아마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 거야. 나도 오늘부터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겠어.

5. 다음 중 시인의 시작 태도가 이 작품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는 바다로 가서/가장 신나게 시퍼런/파도의 칼날 하나를/집어 들었다.
- ②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하나의 소리가 되어.
- ③ 조국을 언제 떠났노./파초의 꿈은 가련하다./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너의 님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 ④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⑤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6.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의 일기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관계없는 문장은?

- ①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은 내게 의미가 없어.
- ② 나는 그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도 외로워.
- ③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 준다면 외롭지 않을 텐데.
- ④ 그렇다면 나도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 ⑤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지.

7. 이 시의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그의 이름을 불러 주고 싶다.
- ②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 ③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기를 바란다.
- ④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
- ⑤ 남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8. 이 시에 나타난 의미 변화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나 → 이름 → 우리
- ② 너 → 몸짓 → 꽃
- ③ 나 → 우리 → 의미
- ④ 몸짓 → 꽃 → 눈짓
- ⑤ 몸짓 → 나 → 꽃

9. 제 1연의 '나'와 '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와 '나'는 무의미한 관계이다.
- ② '그'는 이름이 불리기 전의 상태이다.
- ③ '그'는 '나'와 주종 관계에 있는 존재다.
- ④ '그'는 화자인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 ⑤ '그'는 '나'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존재다.

10. <보기>의 시어 중, '㉠하나의 몸짓 : ㉡꽃'과 시적 의미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 : 위험한 짐승

**보기**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나는 한밤 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탑(塔)을 흔들다가/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新婦)여.

- ② 너 : 이름
- ③ 까마득한 어둠 : 신부
- ④ 추억의 한 접시 불 : 금
- ⑤ 나의 울음 : 얼굴

11. 이 시에서 <보기>의 밑줄 친 말에 대응되는 시어는?

**보기**

인간을 자연과 우주로, 나를 남과 사회로 열어 주는 길들은, 자연과 우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뜻있는 것으로 하며, 나와 남과의 사이에 사회의 질서를 세워 진정한 뜻에서의 인간적 세계를 창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사물로서의 존재가 빛을 받아 원래의 은폐성에서 나와 뜻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게 되며, 동물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는 인간으로서 승화하게 된다.

- ① 이름    ② 몸짓    ③ 꽃    ④ 눈짓    ⑤ 빛깔과 향기

12. 이 시의 시구 중, <보기> 시의 '나의 신부'와 함축적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보기**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나는 한밤 내 운다.//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탑(塔)을 흔들다가/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新婦)여.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 ① 그의 이름    ② 꽃    ③ 빛깔과 향기
- ④ 무엇    ⑤ 하나의 눈짓

고 있는가? 알맞은 시어를 찾아 쓰시오.

13. ㉠~㉥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반드시 음성만이 의미를 보증하는 경우
- ② 사회적 규약으로서 언어 규범이 깨진 경우
- ③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합일에 이른 경우
- ④ 음성과 의미 사이의 필연적 결합이 깨진 경우
- ⑤ 언어 기호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15. ㉧를 낭송할 때, 그 어조로 알맞은 것은?

- ① 간절한 호소의 어조      ② 강한 호기심의 어조
- ③ 힘이 없고 지친 어조      ④ 누구를 원망하는 어조
- ⑤ 고압적인 명령의 어조

16. ㉨의 상징적 의미를 잘못 적용한 것은?

- ① 나의 사랑하는 연인 슬기
- ② 고등학교 시절 나의 단짝 친구인 하늘이
- ③ 울적할 때 마음의 벗이 되어 주는 우리 집 난초
- ④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 복실이
- ⑤ 매주 산행할 때마다 지나치게 되는 물개 모양의 큰 바위

17. ㉩과 ㉪을 다른 말로 바꾸어 쓸 때, 가장 부적절한 것은?

- ① 광채와 모양 - 보석      ② 영롱한 빛 - 별
- ③ 영양가와 맛 - 밥      ④ 선과 색채 - 조각
- ⑤ 사랑과 믿음 - 애인

18. <보기>의 시는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하여 새롭게 형상화한 작품으로, 추상적이고 정서적 행위인 사랑을 라디오를 켜고 끄는 것과 같은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산업 사회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 이 시의 '꽃'을 <보기> 시에서 무엇으로 표현하

보기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19. ㉫와 대조의 관계에 있는 시어 셋을 찾아 쓰시오.

20. ㉬과 시적 의미가 상통하는 시어 두 개를 찾아 쓰시오.

- 1) ③.  
'꽃'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 2) ⑤.  
이 시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
- 3) ④.  
시적 대상의 변모에 대해 잘 생각해 본다.
- 4) ④.  
①,②,③,⑤는 작품을 사회 또는 작가와의 관계 속에서 감상하는 외재적 관점의 감상이다.
- 5) ⑤.  
⑤에는 사물의 존재와 본질을 탐구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6) ⑤.  
이 시는 명명 행위를 통한 의미 획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름을 기억하는 문제는 이 시와 상관이 없다.
- 7) ④
- 8) ④.  
시상의 전개 과정은 '몸짓→꽃→의미'이며 '너→나→우리'로 의미가 확장된다.
- 9) ③.  
'그'는 아직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이다.
- 10) ③.  
㉔는 무의미한 사물을, ㉕은 존재성을 가지게 된 본질을 의미한다.
- 11) ①
- 12) ③.  
<보기>에서 '나의 신부'는 존재가 지니는 본질적 속성 또는 의미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과 의미가 통하는 시구는 '빛깔과 향기'이다.
- 13) ⑤.  
㉔는 시적 화자의 이름을 불러 줄 누군가를 말한다.
- 14) ⑤.  
명명 이전 상태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 15) ①
- 16) ⑤.  
㉕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다.
- 17) ④.  
㉔존재의 본질, ㉕은 없어서는 안 될 참되고 절실한 의미를 지닌 존재를 말한다.
- 18) 전파
- 19) 꽃, 무엇, 눈짓.  
이 시에서 몸짓은 명명 이전의 의미 없는 존재이다.
- 20) 꽃, 무엇.  
㉔은 의미 있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존재의 본질 인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② 존재의 무의함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③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존재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포항중앙고>

2. 이 시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강연의 제목으로 삼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 불러보고 싶은 이름에 대하여
  - ② 꽃, 존재의 본질을 알려주는 몸짓
  - ③ 꽃, 그 화려한 빛과 향기에 대한 소원
  - ④ 꽃,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
  - ⑤ 꽃,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정

<포항중앙고>

3. 이 시의 '꽃'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민 끝에 찾아낸 정답
  - ② 새롭게 가슴에 와 닿는 아버지의 말씀
  - ③ 울적할 때 위안을 주는 민들레꽃 한 송이
  - ④ 문득 올라다 본 하늘의 초롱초롱한 별빛
  - ⑤ 매일 교문 앞에서 마주치는 느티나무

<포항중앙고>

4. ㉠, ㉡의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 ① 감촉과 디자인 - 옷
  - ② 영롱한 빛 - 별
  - ③ 영양가와 맛 - 밥
  - ④ 사랑과 믿음 - 애인
  - ⑤ 크기와 가격 - 조각

<칠원고>

5. 동일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시어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그 - 몸짓 - 나
  - ② 꽃 - 무엇 - 눈짓
  - ③ 이름 - 몸짓 - 꽃
  - ④ 그 - 나 - 우리
  - ⑤ 꽃 - 빛깔과 향기 - 이름
6. '나'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나'가 대상에 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 ② 대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 ③ '나'가 대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 ④ '나'는 대상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다.
  - ⑤ '나'와 대상이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7. 다음 중 위 시의 '꽃'과 의미하는 바가 유사한 시어가 들어있는 시는?
- ①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 가 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단발이 흩어져 있었다
  - ②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③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④ 바라보면 볼수록 가깝고도 먼 얼굴 꽃이여..... 너는 영원히 깨인 눈 / 태양처럼 또렷한 의식
  - ⑤ 가시는 걸음 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8. 위 시를 '시 창작 과정'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때,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 중, ㉠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 것은?

**보기**

언어는 / 꽃잎에 닿자 한 마리 나비가 / 된다. // 언어는 소리와 뜻이 찢긴 깃발처럼 / 펄럭이다가 / 쓰러진다. / 꽃의 돌레에서 / 밀물처럼 밀려오는 언어가 / 불꽃처럼 타다간 / 꺼져도 // 어떤 언어는 / 꽃잎을 스치자 한 마리 꿀벌이 / 된다.

- ① 꽃잎
- ② 나비
- ③ 깃발
- ④ 불꽃
- ⑤ 꿀벌

9. ㉠의 상징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존재의 의의를 지니고 싶다.
- ② 상황에 대응하고 싶다.
- ③ 본질을 구현하고 싶다.
- ④ 의미를 띠고 싶다.
- ⑤ 명명이 되고 싶다.

<천안여고>

10. ㉠-㉡ 중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시어는?

**보기**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1. 위 시를 읽고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는 급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내하는 자에게 행운이 오리라
- ② 서로의 관심 속에 하나 되는 우리
- ③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 ④ 각자의 개성의 향기가 넘치는 교실
- ⑤ 몸은 각각이지만 마음은 하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나)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라디오  
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 라디오가 되고  
싶다.

12. (나) 시는 김춘수의 '꽃'을 바꾸어 쓴 것이다. 이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나타난 운율과 통사 구조 등 형식적인 면은 그대로 유지한다.
- ② 타인과의 진실한 만남을 꺼리는 현대인의 내면을 나타낸다.
- ③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게 한다.
- ④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사랑이 아닌 편리하고 일회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 ⑤ 명명 행위를 통해야만 존재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을 그대로 이용한다.

13. <보기>의 관점에서 (가)와 (나)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패러디는 작품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원작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창조 행위이다. 원작을 모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원작과 패러디한 작품을 강렬하게 대비시켜 원작이 담고 있는 기존 관념을 깨는 신선함을 독자에게 제공하며, 원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① (나)는 (가)의 형식과 내용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다.
- ② (가)와 (나)시에 나타난 작가의 세계관에는 차이가 없다.
- ③ (나)는 (가)의 시행 배열, 연의 구분, 어조 등을 따르고 있다.
- ④ 표현 면에서 (가)는 반어에, (나)는 역설의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 ⑤ (나)는 (가)를 모방하고 있지만, 진실성을 동반한 순수 창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호고>

1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몸짓 - 꽃 - 눈짓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 ② (가)는 명명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존재 본질의 구현을 소망하고 있다.
  - ③ (나)는 현대인의 인스턴트식 사랑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 ⑤ (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성호고>

15. (나)는 (가)에 의해 패러디된 작품이다. 다음 중, 패러디한 부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가)       | (나)              |
| ① 이름      | 라디오              |
| ② 몸짓      | 단추               |
| ③ 꽃       | 전파               |
| ④ 눈짓      |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
| ⑤ 이름을 부른다 | 라디오를 끈다          |

<성호고>

16. 다음 글의 밑줄 그은 ㉠, ㉡, ㉢에 대응되는 시어를 (가)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인간을 자연과 우주로, 나를 남과 사회로 열어 주는 길들은, 자연과 우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뜻있는 것으로 하며, 나와 남과의 사이에 사회의 질서를 세워 진정하나 뜻에서의 인간적 세계를 창조한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무의미한 존재가 ㉡빛을 받아 ㉢원래의 은폐성에서 밖으로 뜻을 가지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며, 동물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는 인간으로서 승화하게 된다.

- |              |           |        |
|--------------|-----------|--------|
| ① ㉠ - 꽃      | ㉡ - 명명 행위 | ㉢ - 눈짓 |
| ② ㉠ - 몸짓     | ㉡ - 명명 행위 | ㉢ - 꽃  |
| ③ ㉠ - 빛깔과 향기 | ㉡ - 무엇    | ㉢ - 눈짓 |
| ④ ㉠ - 빛깔과 향기 | ㉡ - 명명 행위 | ㉢ - 눈짓 |
| ⑤ ㉠ - 꽃      | ㉡ - 명명 행위 | ㉢ - 몸짓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물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나)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님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17. (가)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지주의 계열의 시이다.
  - ② 시간 순서에 의한 추보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③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 ④ '너→나→우리', '꽃→몸짓→눈짓'으로의 의미의 점층적인 확대 과정을 보이고 있다.
  - ⑤ 인식의 주체인 '나'가 객체인 '너'를 인식함으로써 '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18. (가) 시의 내용으로 보아 '존재'의 인식 수단이 되는 것은?
- ① 언어
  - ② 관념
  - ③ 감성
  - ④ 지식
  - ⑤ 이성
19.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 ① 존재의 의미 탐구
  - ② 사랑하는 존재의 상실
  - ③ 현실로부터의 도피
  - ④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
  - ⑤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소박한 태도

<덕문여고(인문)>

20. 두 시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학적인 인식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② (나)시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가)보다 우회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는 소망을 완성하는 반면, (나)시는 완성에 실패한다.
- ④ 둘 다 묘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시는 시적화자와 대상 관계가 쌍방향적인 데 반해, (나)시는 일방적이다.

21. ㉠~㉣의 의미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는 영향 관계, ↔는 반대 관계, =통일 관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22.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시어의 연결 단계가 적절한 것은?

- ① 그 - 몸짓 - 나
- ② 나 - 그 - 우리
- ③ 몸짓 - 꽃 - 눈짓
- ④ 이름 - 꽃 - 빛깔
- ⑤ 몸짓 - 빛깔 - 향기

23.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식이 점층적으로 확대된다.
- ② 꽃을 심미적 대상으로 본다.
- ③ 존재론을 배경으로 한다.
- ④ 언어의 역할이 강조 된다.
- ⑤ 진정한 관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24. 다음 감상 중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 ① 사람이 꽃이 된다는 것은 옛날이야기에서 나오는 일로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② 문학은 꿈이잖아. 나도 가끔 변신을 꿈꾸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흔히 있는 일이다.
- ③ 맞아. 이 시를 쓴 시인이 사는 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삭막할 것 같아. 그러니 서로 꽃이 되자고 한 것 아닐까.
- ④ 꽃이 환기시키는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주제로 잘 연결되는 것 같아.
- ⑤ 시인은 아마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거야. 나도 오늘부터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겠어.

2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존재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갖고 있다.
- ②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하였다.
- ③ '꽃'이라는 사물이 지닌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자연에 접근하려는 인간의 꿈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 ⑤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26. 위 시에 나타난 언어관(言語觀)과 가장 관계가 깊은 말을 한 사람은?

- ① 재혁 :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의 체계'라고 하지. 따라서 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언어 체계를 변경할 수는 없어.
- ② 규호 : 하이데거가 말했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이야. 인간은 언어를 통해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단다.
- ③ 승민 : 각 민족의 언어에는 그 민족 나름대로의 고유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들 말해. 우리는 언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해 왔어.
- ④ 경희 :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라고 하지. 만일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기가 힘들겠지.
- ⑤ 형수 : 언어를 통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 우리는 언어를 통해 학문과 사고 체계를 발전시켜 왔어.

<인천고>

27. 위 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재혁 : '이름 불러 주기'는 명명(命名) 행위로서 '존재의 본질을 밝혀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규호 : '몸짓'과 '눈짓'은 대조되는 말로서 '몸짓'은 무의미한 존재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 ③ 승민 : '꽃'과 '무엇', '눈짓'은 그 이미지가 동격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 ④ 경희 : '나'는 인식의 주체라면 '너'는 객체, '우리'는 주객이 합일된 존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 ⑤ 도균 : 인간이 대상을 인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인식한다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28. 위 시에서 '꽃'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다른 시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다음의 ㉔와 ㉕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 ㉔ )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 ㉕ ) 되고 싶다.

- ① ㉔ - 이기적인 마음    ㉕ - 사랑  
 ② ㉔ - 음악 소리        ㉕ - 리듬  
 ③ ㉔ - 선과 색채        ㉕ - 조각  
 ④ ㉔ - 시                ㉕ - 감정과 리듬  
 ⑤ ㉔ - 광채와 모양      ㉕ - 보석

<동아어고>

29. 위 시의 내용으로 보아 존재의 인식 수단이 되는 것은?

- ① 감각  
 ② 언어  
 ③ 이성  
 ④ 직관  
 ⑤ 관념

30. '몸짓'에서 '꽃'으로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몸짓		꽃	
①	구체적인 것	~에서	추상적인 것	~으로 변화
②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	
③	의미 있는 것		의미 없는 것	
④	의미 없는 것		의미 있는 것	
⑤	본질을 인식한 것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것	

31. 다음은 이 작품의 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시어를 찾아 쓰라.

	1연	2연	3연	4연
너	너	너	너	(        )
나	나	나	나	

32. 이 시는 관점에 따라 각각 '연애시'와 '관념시'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그 견해를 도식화 한 것으로 제시된 설명에 대응하는 시어를 쓰고, 주제를 내용에 맞게 채우라.

구분	연애시로 보는 경우	관념시로 보는 경우
시어의 의미	(a)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존재에 대한 인식
	(b)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	인식되지 않은 존재
	(c) 서로 사랑을 나누는 힘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사물
주제	(d)	(e)

- 1) [답] ③
- 2) [답] ②
- 3) [답] ⑤ [해] 의미 없이 대하는 대상을 찾는다.
- 4) [답] ⑤
- 5) [답] ②
- 6) [답] ⑤
- 7) [답] ④ [해] ④의 꽃은 인식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8) [답] ①
- 9) [답] ②
- 10) [답] ① [해] 인식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 11) [답] ②
- 12) [답] ⑤ [해] 주제 의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아니다.
- 13) [답] ⑤
- 14) [답] ④ [해] 내용 및 주제는 바뀌었다.
- 15) [답] ③
- 16) [답] ②
- 17) [답] ②, ④ [해] 몸짓-꽃-눈짓으로 확대된다.
- 18) [답] ① [해]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의해 인식된다.
- 19) [답] ①
- 20) [답] ③ [해] (가), (나) 모두 소망 추구의 태도가 중심을 이룬다.
- 21) [답] ③
- 22) [답] ③
- 23) [답] ② [해] 꽃은 본질적 의미를 지닌 존재이다.
- 24) [답] ④
- 25) [답] ②
- 26) [답] ② [해] 언어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 27) [답] ②
- 28) [답] ⑤
- 29) [답] ②
- 30) [답] ④
- 31) [답] 우리
- 32) [답] (a) - 이름 불러주기, (b) - 몸짓, (c) - 꽃, (d) - 아름다운 사랑의 추구, (e) - 존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탐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반복과 변화에 의해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미래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같은 형태의 연들을 병렬적으로 배열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2. 윗 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끼고 싶을 때 끼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끼고 켤 수 있다면-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① ㉠은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

② ㉢은 실제 꽃이 아니라 ㉠과 대비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아.

③ ㉣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이 ㉢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④ ㉤도 ㉣을 불러야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미상 ㉢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⑤ ㉤은 ㉡과 마찬가지로 의미상 ㉢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3.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반복적인 일상의 질서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 있다.
- ③ 화자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관념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1. ②      2. ⑤      3. ①

김춘수, 「꽃」

**해제** 이 시는 '꽃'을 소재로 하여 사물과 그 이름 및 의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물의 존재론적 의미를 추구하고, 존재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소망하고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꽃'은 실제 꽃을 가리키는 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물에 대해 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이름을 아는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그 대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까닭에 어떤 대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에게 존재론적으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물의 존재론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1연~2연에서 호명 의식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유의미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 준 후, 3연에서 화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길 소망한다. 이러한 바람은 화자 자신이 타인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4연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너'도 즉 '우리'가 서로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에서 '우리'로 그 주체와 대상이 변화하고 확장됨으로써 이러한 소망이 보편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구성

- 1연: 인식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
- 2연: 명명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 3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 4연: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

1 작품에 대한 내재적 접근 **정답 ②**

2연~4연의 '꽃', '무엇',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같지만 시어가 달라지게 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1연과 2연은 비슷한 구절에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의 반복과 변화, 그리고 '나'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가(3연)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는 반복과 변화를 통해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① '꽃'에서 화자의 시선은 이동하지 않으며, 화자의 관념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이 시에는 음성 상징어가 쓰이지 않았다.
- ④ 이 시의 1연~2연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3연~4연은 현재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과거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어 '그'가 '꽃'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는 '나'도 '꽃'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꽃'이 되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절망감을 표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는 현재도 '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설사 '꽃'이 되기 전(과거, 현재), '꽃'이 된 후(미래)라는 대비를 설정하더라도 이 시에 화자의 절망감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화자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1연과 2연이 유사한 형태이다. 하지만 3연은 1연, 2연과 비슷하지만 그 변화가 크고, 4연은 같은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시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지 각 연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작품의 재구성 양상 파악 **정답 ⑤**

이 시와 <보기> 모두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4연을 통해서, <보기>에서는 3연의 4행~5행과 4연의 1행~2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와 <보기>에서 정도의 차이를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서도 '나'가 그의 단추를 눌렀을 때 전파가 되는 것,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은 것에서 상호 작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이 시와 <보기> 모두에서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찾을 수 없다. <보기>의 마지막 연 3행, 4행 때문에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일회적인 사랑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기>의 마지막 연 3행, 4행이 기계 문명 때문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시에서는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찾을 수 없다.
- ② 이 시와 <보기> 모두에 반복적인 일상의 질서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의 라디오를 끄고 켜는 행위에서 반복적인 일상의 질서를 읽어 내더라도 이 시에서는 반복적인 일상의 질서를 찾을 수 없다.
- ③ 이 시는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 주기를, <보기>는 자신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을 깨워 주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인식의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빛깔과 향기'가 존재의 본질을 상징할 뿐 긍정적 인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보기>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④ 이 시는 '꽃', '이름', '무엇', '눈짓'처럼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보기>는 자신의 소망을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관념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3 시어 간의 유기적 연관성 분석 **정답 ①**

- ㉠은 '꽃', '이름', '무엇'의 다른 표현으로 ㉡과 달리 의미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 ㉡, ㉢ ㉠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가 그가 ㉠을 불러주었을 때 ㉠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과 ㉠은 서로 대비되는 존재를 가리킨다.
- ㉣, ㉤ '꽃', '이름', '무엇', '눈짓'은 모두 의미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碑)스 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쓰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노고지리: '종다리'의 옛말.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외양 변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화자가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시상 전개 과정에서 어조에 변화를 주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 (가)는 부제에 나오는 '청년 화가 L'의 예술관을 표현한 작품이라고도 평가된다. 관객의 반응으로 볼 때, 그의 예술관이 실현된 그림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전시회의 그림	관객의 반응
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모습이 작품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②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의 분위기를 느껴져."
③		"민중들의 삶이 정교하게 표현된 중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
④		"하늘을 향해 꿈틀거리며 뻗어 치는 모습에서 강렬함을 느꼈다."
⑤		"화려한 원색을 이용해 대상의 형태로 표현하였구나."

3.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몸짓'은 존재를 인식하기 전의 무(無)와 다름없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는 무의미했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어.
- ③ '꽃'은 '나'의 참된 모습에 어울리는 의미를 부여해 줄 존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 ④ '빛깔과 향기'는 대상이 지닌 참된 모습과 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
- 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은 진정한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1 ③

2 ④

3 ③

해제 ㉠ | 이 작품은 '청년 화가 L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을 초월한 예술가의 열정과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청년 화가 L을 화자로 설정하여, 화자가 자신의 죽음을 노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생명성을 상징하는 '차가운 비스 돌'을 거부하고 생명성을 상징하는 '노오란 해바라기', '끝없는 보리밭', '태양', '노고지리'를 지향하는 태도를 통해 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 '세우지 말라', '심어 달라', '보여 달라', '생각하라' 등의 단호한 명령형의 종결 처리법을 통해 육체적 죽음의 세계를 부정하고 생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려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와 단호한 어조를 통해 죽음을 초월하여 진정한 예술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예술가의 생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죽음을 초월한 생명에의 의지

구성 |

1행: 비생명성을 거부하려는 의지의 표명

2행~3행: 생명의 충일함을 통해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

4행~5행: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과 꿈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해제 ㉡ | 이 작품은 꽃에 대한 명명(命名) 행위를 통해 자아와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시로, 서정성보다는 주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관념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철학서처럼 난해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쉬운 시어와 비유적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연에서 '이름을 불러 주기'는 명명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누군가가 인식하기 전에는 무(無)나 다름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2연에서처럼 화자가 대상을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 주면 그는 정체를 드러내며 다가오기 시작한다. 3연에서는 빛깔과 향기, 곧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4연에 이르러 '우리'의 것으로 확산된다.

주제 | 존재의 본질 구현을 통한 진정한 만남을 소망함.

구성 |

1연: 인식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인 '그'

2연: 명명에 의해 존재 의미를 부여받은 '그'

3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4연: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

### 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화자는 '해바라기', '보리밭', '달라', '생각하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죽음을 초월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이름', '꽃', '싫다'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을 나열하고 있으며, 대상의 외양 변화를 그리고 있지 않다. (나)는 과거의 체험과 미래의 소망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을 뿐이며, 대상의 외양 변화를 그리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 생명력을 상징하는 '보리밭'은 봄이라는 계절감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나)에는 '꽃'이라는 소재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의미 있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계절감과 관련이 없으며, 시적 분위기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다.

④ (나)는 화자가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몸짓', '꽃', '빛깔', '향기' 등의 소재를 사용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나 (가)에는 미래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 촉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화자의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는 일관되게 차분하고도 의지적인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 역시 일관되게 소망을 나타내는 간절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2 감상의 적절성 평가 ④

작품의 주제가 표출된 다른 매체의 작품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그림에 대한 관객의 반응 중, 시의 화자가 소망하는 바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주된 소재인 '해바라기'는 화려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보리밭'은 생명의 터전을, '노고지리'는 하늘을 날아오른 꿈을 각각 상징한다. 또한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보리밭'의 푸른색의 대조로 인해 더욱 강렬한 생명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지닌 청년 화가 L은 ④의 작품처럼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품을 그렸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강렬한 생명력을 노래한 (가)의 내용으로 볼 때, 화가는 차분함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② (가)는 죽은 후의 바람을 담고 있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지는 않고 있다.

③ (가)는 화가 개인의 예술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민중의 삶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강렬한 원색의 대비는 나타나지만, 대상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화자의 예술관은 나타나 있지 않다.

### 3 구절의 의미 파악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하나의 몸짓'과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그런데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의미를 부여해 줄 존재는 '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불러 줄 '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나의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를 상징한다.
- ② '이름'부르기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 ④ '빛깔과 향기'는 대상이 지닌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
- 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나)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번 —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 장석남, '수묵(水墨) 정원 9 - 번짐'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희화화하여 화자의 속마음을 담아낸다.
- ② 정경 묘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운치를 자아낸다.
- ③ 계절의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생각을 펼쳐 낸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⑤ 특정 시어들을 반복하여 화자의 주요 관심을 부각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꽃」에서 '꽃'은 이름을 통해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이름을 불러 주는 자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 ① ㉠은 '그'가 화자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 ② ㉡의 '꽃이 되고 싶다'는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내포한다.
- ③ ㉢에서 화자는 '그'를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로 여긴다.
- ④ ㉢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함의하는 바는 '꽃'이 함의하는 바와 유사하다.
- ⑤ ㉢의 '잊혀지지 않는'은 타인보다 우월함을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에서 '번짐'은 수묵화를 그릴 때 한지에서 먹 물이 퍼져 나가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 '번짐'을 통해 인간과 자연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대한다. 그리하여 화자는 '번짐'을 어떤 개체가 자신을 퍼뜨리면서 전이시켜 나가는 일로, 한 개체가 다른 개체가 되는 과정의 시작으로 통찰해 낸다.

- ① '사라지고'로 보아, 화자는 번짐으로 인하여 어떤 개체가 확산되어 가는 일이 그 개체가 자신을 전이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 ② '어느덧'으로 보아, 화자는 한 개체가 번짐을 계기로 하여 다른 개체가 되는 일이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 ③ '나'의 번짐을 대하는 관점으로 보아, 화자는 번짐이 어떤 개체가 정체성을 고수할수록 잘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것 같아.
- ④ '꽃'과 '여름'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 화자는 번짐이 자연의 질서를 통찰하는 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
- ⑤ '오두막 한 채'와 '봄 나비 한 마리'의 관계로 보아, 화자는 번짐이 사물과 생물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1. ⑤      2. ⑤      3. ③

(가) 김춘수, 「꽃」

**해제** 이 시는 '꽃'을 소재로 하여 이름을 부르는 일(명명 행위)과 이름이 불리는 일의 의미를 다룬 것이다.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르는 일은 어떤 개체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준 화자가 자신 또한 이름이 불리어져 '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지니면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처럼 진정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은,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인간 본연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작품의 마지막 행에 나오는 '하나의 눈짓'은 작품이 처음으로 발표될 당시에는 '하나의 의미'로 제시되었다가 후에 고쳐진 것이다.

**주제** 존재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 내하고자 하는 소망

**구성**

- 1연: 이름이 불리어지기 전의 '그'
- 2연: 이름이 불리어져 내게 '꽃'이 된 '그'
- 3연: 존재의 의미를 지니면서 진정한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는 '나'
- 4연: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은 '우리'

(나) 장석남, 「수목 정원 9--번짐」

**해제** 이 시는 정원의 사계를 한 편의 수목화를 대하듯이 바라보면서 '번짐'의 속성과 의의를 노래한 것이다. 화자가 주목하는 번짐은 수목화를 그릴 때 한지에서 먹물이 퍼져 나가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 번짐의 관점에서 자연 현상, 인간, 인간 문화, 삶과 죽음, 풍경 등 자신을 둘러싼 것들을 바라본다. 그리하여 화자는, '번져 사라지고'와 '번져 ~ 되고'에서 잘 드러나듯이, '번짐'이 어떤 개체가 자신을 퍼뜨리면서 전이시켜 나가는 일임을, 한 개체가 다른 개체가 되는 과정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의 삶과 사랑의 바탕을 이루는 것임을 통찰해 낸다.

**주제** 번짐의 속성과 의의

**구성**

- 1연: 번짐의 속성에 대한 인식
- 1~6행: 사라짐과 됨으로서의 번짐
- 7~10행: 삶의 근간으로서의 번짐
- 11~16행: 번짐의 양상과 의의
- 17~18행: 사랑의 속성으로서의 번짐
- 2연: 번짐의 구체적 정경

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답: ⑤

⑤ (가)는 '꽃'과 '이름'을 반복하여, 명명 행위를 통해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면서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 내는 일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부각한다. (나)도 '번짐'과 '되고'를 반복하여, 번짐의 의의를 성찰하는 일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부각한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대상을 희화화하지 않는다.
- ② (나)는 '산기슭의 오두막 ~ 날아온다'와 같이 정경 묘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운치를 자아낸다. 그러나 (가)는 정경 묘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 ③ (나)는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죽음), 겨울(죽음)에서 봄으로의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생각을 펼쳐 낸다. 그러나 (가)는 그렇지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가)에는 '빛깔'이라는 시어가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빛깔과 관련된 색채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수목화를 그리듯이 다양한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어 대상들에 먹빛이 투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빛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2.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⑤

⑤ (가)에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는 '우리들'이 서로에 의해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고,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잊혀지지 않는'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잊혀지지 않는'은 타인보다 우월함을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1연에서 ㉠은 '그'가 이름이 불리기 전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2연에서의 '꽃이 되었다'와 대비된다. 그러므로 (보기)에서의 '꽃'이 이름을 불러 주는 자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 '그'가 화자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땀

이해될 수 있다.

② 화자는 ㉠에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런 바람은 이름이 불리어 의미를 지니는 존재이자 동시에 '그'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 '꽃이 되고 싶다'는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③ ㉡은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그'는 화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줄 것으로 고대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곧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에서 화자는 '그'를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로 여긴다고 할 수 있다.

④ ㉢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은 '무엇'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자 '꽃'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은 '우리들'이 서로에 의해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함의하는 바는 '꽃'이 함의하는 바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③ (나)의 '너는 내게로 /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에서 '너'의 번짐을 통해 이루어진 '나'는 번짐을 통해 다시 '너'가 되는 존재로 비춰진다. 이는 '나'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임을 뜻한다. '나'의 번짐은 '나'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퍼뜨리면서 '나'를 전이시켜 내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번짐에 주목하면, 화자가 번짐을 어떤 개체가 정체성을 고수할수록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감상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 여름이 되고'에 주목하면 번짐은 사라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보기)를 참고하여 '사라지고'에 주목하면, 화자가 번짐으로 인하여 어떤 개체가 확산되어 가는 일을 그 개체가 자신을 전이시켜 나가는 일로 여길 것이라고 감상할 수 있다.

② (나)의 '너는 내게로 /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에서 화자는 번짐으로 인해 '너'가 '내가 되는 일'을 '어느덧' 이루어지는 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보기)를 참고하여 '어느덧'에 주목하면, 화자가 한 개체가 번짐을 계기로 하여 다른 개체가 되는 일을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감상할 수 있다.

④ (나)의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에서, 화자는 '꽃'과 '여름'이 번져 각기 '열매'와 '가을'이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화자의 이런 태도는 번짐으로 자연의 질서를 통찰하는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꽃'과 '여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여, 화자가 번짐을 자연의 질서를 통찰하는 일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감상할 수 있다.

⑤ (나)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오두막 한 채'가 번져서 '봄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번짐을 통해 사물인 '오두막'과 생물인 '나비' 사이의 관계를 통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를 참고하여 화자의 이런 태도에 주목하면, 화자가 번짐을 사물과 생물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길 것이라고 감상할 수 있다.